자유논제

p.93

세상이란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그 세상이라 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조건 강하고 준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만, 호리키가 그렇게 말하자 불현듯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는 게 싫어서 도로 삼켰습니다. …..(중략)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비숫한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Q. 요죠가 말한 ‘세상이란 개인이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나요? 그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택논제

p. 131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